

문화탐방

바람과 바당이 있는 제주올레5코스 탐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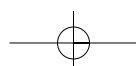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성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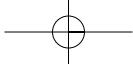
초등학교때 현장학습을 기다리던 기분으로 제주 올레5코스에 대한 설레임으로 새벽잠을 설쳤다. 제주올레5코스에 대한 기대감은 화창한 날씨로 인해 더욱 충만해졌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포구에서 시작된 길은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까지 연장 15km, 탐방시간은 도보로 보통사람의 기준으로 4~5시간 소요된다. 오늘 탐방한 올레는 일상에서 접하는 길과 접하지 않았던 길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종류의 길 모두 필자에게는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었다. 제주올레5코스내에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큰엉경승지’, ‘신영영화박물관’, ‘동백군락지’, ‘넙빌레’, ‘조배머들코지’ 등이다. 4월의 오후에 시작된 탐방에서 제주의 바다를 보고, 바람을 체감하며 봄의 햅살을 맘껏 누릴 수 있었다. 제주올레5코스를 돌아보며 필자가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한다.



〈그림 1〉 제주올레5코스 현황





〈그림 2〉 제주올레5코스 주요경관1

남원포구에서 시작된 여정은 사진1-1과 같이 남원포구와 사진1-2의 제주올레5코스 안내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남원포구 앞 바당¹⁾은 푸르다 못해 에메랄드빛을 발하고 있었고, 햇살은 찬란하며, 바람은 걷는 동안 피부로 느낄 정도의 상쾌함을 전해주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제주올레를 걷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지인 쇠소깍까지 여정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걸어나갔다. 기대감으로 빨리 걷고 싶었지만, 남원 앞바다는 걷는 것만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1-3과 같은 바다가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하고, 눈은 푸르다 못해 에메랄드색의 바당에서 눈을 뗄 수 없게 하고, 상쾌한 바람까지 발걸음을 천천히 이끌었다. 바다를 보며 길을 가니 사

진2-1과 같은 방호석들이 나타난다. 돌이 많은 제주라 돌로 만들었고, 시선유도 효과는 있겠지만, 강성이 너무 강한 재질이라 방호석의 기능으로는 유명무실이고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시설이 아니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이다.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방호석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았다. 시문을 돌에 새겨 넣고 지나가는 올레꾼이 바다를 느끼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좀 더 가니, 갈대가 나타나고, 제주석을 이용한 보행로가 나타나고 신영영화박물관과 연결되는 구간이 나타난다. 사진3-3과 같이 몇년전에 유행했던 영화의 주인공이 포스터로 반갑게 맞아주고 있다. 잠시 그 영화를

1) '바다'의 제주방언임



〈그림 3〉 제주올레5코스 주요경관2

상기하면서 다시 길을 재촉했다.

눈앞에 바람의 언덕에 서있는 리조트가 나타난다. 리조트변에 위치한 큰엉²⁾의 바람과 바위 그리고 길의 풍광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곳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매섭고 세찬지 사진5-3과 같이 나무의 가지 방향과 잎들이 바다에서 올레길쪽으로 향해 있었다. 큰엉의 풍광은 오랜세월동안 바다와 바람이 만든것 같다. 큰엉을 지나서 마을올레로 접어 들었다. 길을 가다보니 사진6-1과 같은 특이한 대문이 나타났다. 집주인의 여유와 낭만이 느껴졌고, 올레꾼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다. 다시 길은 마을내

부를 거쳐 해안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을 안길에서 사진6-2와 같은 무인가판대를 만날 수 있었다. 구경하면서 다시 걸으니 매점이 나온다. “풍경지기”라고 이름지어진 매점이 있었다. 주인장 명함을 받았는데, 풍경지기 000라고 되어 있다. 이곳의 풍경 주인인 모양이다. 매점에서는 간단한 음료와 차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틀어 주어 올레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잠깐 쉬면서 주인장을 살펴보았다. 과연 이곳의 풍경지기라고 자처할 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이다.

사진6-4와 같이 돌담이 이끄는 길을 따라 나아가니 ‘신그물’ 안내판이 나타난다. 바다와 접한 웃고

2) ‘큰엉’이란 제주도 사투리로 ‘큰 언덕’이라는 뜻인데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바다를 집어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언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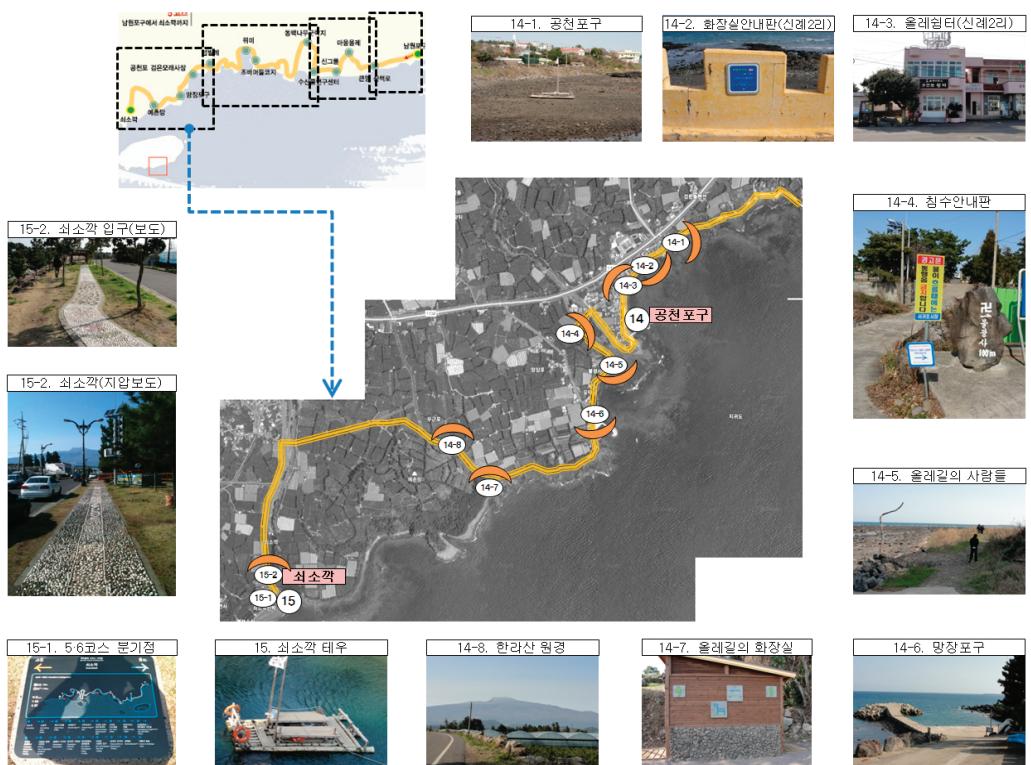


〈그림 4〉 제주올레5코스 주요경관3

망과 알고망 두곳에서 물이 용출하는 신그물은 단 물이 나오며 물이 싱겁다는 뜻에서 불리워졌다고 한다.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에는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였다. 신그물에서 수산물연구센터까지의 길은 바다를 옆에 두고 걸으며 바다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수산물연구센터 입구를 거쳐 이제는 동백군락으로 이동하니 동백꽃들이 여기저기에 피어 있다. 따뜻한 남쪽이라서 동백이 이렇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동백꽃이 만개할 때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동백군락지를 거쳐 마을로 접어들었다. 돌담은 예전과 다름없는데, 집들은 제주고유의 모습이 사라지고 과거의 모습인 돌담에 현재의 집들이 조화로운듯 불협화음인듯 공존하고 있다. 마을올레가 길을 꺽는 지점에 사진10과 같이 제주올레스탬프 확인장소인

상점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제주올레패스포트에 확인도장은 받은 경우는 해당코스 완주로 인정해주고, 패스포트 소지자는 일부 항공사에서 항공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세천포구를 돌아서 아름다운 해안이 계속된다. 사진10-3과 같은 몽돌 해안길을 돌아서 위미항으로 접어들었다. 사진 11-1의 앞계포구는 현대적인 위미항에 비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위미항에서 고망물을 지나면서 보니 옛날 식수원이었던 용천수들은 역사로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었다. 용천수가 없어져 가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인가? 수량이 적어지고 기능이 없어지니 필요가 없어진 것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이런 생각으로 고망물의 흔적을 확인하면서 지나가며 사진12의 고망물을 보았다. 전설이 되고 있는 고망물의 안내판에는 이것이 고망물이 위미 선인들의 식수



〈그림 5〉 제주올레5코스 주요경관4

원이였고 수질이 좋고 물맛이 일품이라 상수도가 개설되기 전에 음용수로 이용되었고, 고망물을 이용하여 소주를 생산하는 소주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보호수를 지나니 사진12-2와 같은 판매시설을 거쳐 넓빌레가 나와 있다. 넓빌레는 제주사투리로 ‘넓’은 ‘넓다’는 의미하며 ‘빌레’는 ‘자갈’, ‘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넓빌레’는 ‘넓은 자갈마당’이나 ‘넓은 돌무더기 터’를 의미한다.

공천포에는 검은모래 해변이 있다(사진 14-1). 이곳을 지나 공천포구까지 오면서 신례2리 마을회관에 마련된 올레쉼터를 만날 수 있다. 사진14-4에서는 침수위험지역을 지나서 길을 재촉하니 14-5와 같이 앞서가는 올레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진14-7지점에서는 올레꾼을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어있다. 이곳을 뒤로하니 사진 14-8과 같은 한

라산의 원경이 큰술뚜껑을 엎어놓은듯 펼쳐진다. 쇠소깍으로 가는 길은 잘 정비되어있다. 지압보도와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쇠소깍에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테우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닌다. 제주올레5코스는 이곳 쇠소깍에서 길이 끝난다. 제주올레5코스는 끝이 났지만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인 제주올레6코스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쇠소깍은 제주올레5코스의 종점이면서 제주올레6코스의 시작지점이 되어 외돌개까지 이어진다.

기존의 시설관광지 관람을 위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간과했던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제주올레를 앞으로 계속 걸어야겠다는 맘으로 여정을 즐겁게 마무리했다. 아직 까지 가보지 못한 제주올레에 대한 기대로 새로운 힘이 생긴다.